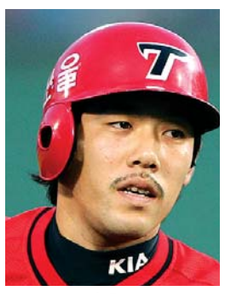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광주스포츠 빛낸다

내년 시즌 대비 동계훈련 담금질

〈양현종〉

KIA '광저우 3총사'


〈이용규〉

〈윤석민〉

광주FC 'J리거 3총사'

〈박기동〉

〈김호남〉

〈김동섭〉

'광저우 3총사'와 'J리거 3총사'가 광주 스포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광주 FC의 창단으로 2011년 봄에는 광주에 프로야구와 함께 프로축구의 바람이 동시에 불게 된다.

광주의 터줏대감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1일 첫 훈련을 시작한 광주 FC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등지에서 호흡을 맞추며 2011년 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동료들과 손발을 맞추지 못한 KIA 이용규·윤석민·양현종 등 '광저우 3총사'와 일본리그에서 복귀하는 김동섭(시미스)·김호남(사간도스)·박기동(FC 기후) 등 'J리거 3총사'까지 가세하면 두 팀의 겨울준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광저우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KIA의 태극전사들은 달콤한 휴가 중이다. 4강 탈락으로 KIA에게는 쓸쓸한 겨울이 됐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했던 세 선수는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하느라 분주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5일 신임주장 최희섭의 결혼식장에서도 세 선수는 스포츠 채널에서 요청한 인터뷰 등을 하면서 유명세를 치렀다. 특히 양현종은 2010 프로야구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각종 시상식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오는 13일께 팀에 복귀한다. 윤석민도 충분한 휴식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양현종과 함께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골든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용규는 6일 광주로 복귀했다. 이용규는 7일부터 팀에 합류해 3총사 중 가장 먼저 훈련을 시작한다.

K-리그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광주의 기대주 김동섭과 김호남도 6일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김동섭은 지난해 이집트 U-20(20세 이하)월드컵 8강 멤버로 광주로부터 신생팀 우선 지명을 받은 스트라이커. 김호남은 홍명보 감독이 지휘한 올림픽팀에서 태극마크를 단 경험이 있는 미드필더다.

빠른 스피드가 강점인 두 선수는 현 소속팀의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김동섭과 김호남은 7일 코칭스태프와 상견례를 한 뒤 새 유니폼을 입고 광주의 그라운드를 누빌 예정이다.

191㎝의 장신 공격수 박기동도 9일 귀국해 주전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한편 'J리거 3총사'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는 7일 영광종합운동장에서 자체경기를 갖고 그동안의 훈련을 평가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설원의 건맨

독일의 미하일 그레이스가 6일(한국시간) 스웨덴의 오스터선트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월드컵에서 골인지점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말 많은 '무승부=패' 바뀌나

프로야구 8개구단 감독들 11일 간담회서 규정 논의

8개 구단 감독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로야구 무승부 규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구단 감독들은 11일 감독 간담회를 열어 내년 시즌 경기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다.

8개 구단 운영팀이 지난 주말 윈터미팅을 통해 추린 굵직한 안건은 무승부 규정과 스피드업 고찰, 포스트시즌 엔트리 제출 시기, 경기수 증대 등 4가지로 이 중 관심을 끄는 건 무승부 규정이다.

각 구단 사장들로 구성된 프로야구 이사회는 지난해부터 2년간 정규 시즌에서 무승부를 패배로 규정하고 리그를 운영해왔다.

연장 12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양 팀에 모두 패를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행 당시부터 현장 감독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KBO는 올해 초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했지만 8개 구단 단장 중 5명이 현행 유지, 3명이 무승부 규정 손질을 주장, 다수결에 따라 '무승부 =패배' 원칙을 계속 유지했다.

현행 무승부 규정에 대한 감독들의 반응이 대부분 탐탁지 않은 점을 볼 때 무승부 규정은 과거의 예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한국프로야구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무승부에 0.5승을 주는 승률제를 시행했다. 승리 숫자와 무승부 숫자(무승부 게임 X 0.5)를 합해 전체 경기 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그러다 1998년부터 무승부를 경기 수에서 빼고 팀 승수를 전체 경기수로 나누는 일본식 승률제를 2002년까지 실시했다. 2003~2004년에는 다승제로 바꿨다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일본식 승률제로 환원했다.

한편 이날 감독 모임에서는 2011년과 2012년 큰 국제대회가 없는 측면을 고려, 경기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팀간 19경기씩, 팀당 133경기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최나연 '베어 트로피'… 시즌 2관왕

LPGA 챔피언십 양희영 준우승

2010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왕 최나연(23·SK텔레콤·사진)이 평균 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해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최나연은 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그랜드 사이프레스 골프장(파72.6518야드)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대회 L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에서 최종합계 1언더파 287타로 대회를 마친 최나연은 로라 디아스(미국)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랐다.

시즌 상금 187만1166달러를 쌓아 상금왕을 확정한 최나연은 이번 시즌 69.87타를 기록해 69.95타를 기록한 크리스티 커(미국)를 불과 0.08타 차로 제치고 베어 트로피를 받았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베어 트로피를 받은 것은 2003년 박세리, 2004년 박지은에 이어 최나연이 세 번째다. 최나연은 "이번 시즌 가장 받고 싶었던 상이 최저타수상이었다"며 "최저타수상은 1년 내내 꾸준한 성적을 낸 선수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렸던 양희영(21)은 이날 2타를 잃어 4언더파 284타로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다. /연합뉴스

우즈, 결국 무관… 우승문턱서 좌절

셰브론 챌린지 맥도웰 우승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부활의 날개가 꺾여 버렸다.

올해 극심한 부진을 꺾은 우즈는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의 셔우드 골프장(파72.7027야드)에서 열린 셰브론 월드챌린지 마지막 날 4타차 선두로 나섰지만 US오픈 챔피언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사진)에게 동타(16언더파 273타)를 허용, 연장전으로 끌려간 뒤 역전패를 당했다.

자신이 주최한 비정규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해 희망찬 2011년을 맞이하려 했던 우즈는 신기의 퍼트를 앞세운 맥도웰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미 이 대회에서 네차례나 우승했던 우즈는 3라운드까지 불꽃타를 휘두른데다 셔우드 골프장에서 3타 이상 앞서 나갔을 때는 역전을 허용한 적이 없었기에 이날 패배는 충격적이었다.

우즈가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치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맥도웰은 3타를 줄이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우즈는 두번째 샷을 맥도웰보다 홀에 더 가깝게 붙였지만 맥도웰은 7m 가까이에서 굴린 퍼트를 집어넣어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